

A Study on the Burden on Primary Guardian of Elderly Long-Term Care Patients*

Kim, Eun-Young**

Choi, Cheon Geu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pecifically explore the burden of care for primary caregivers of elderly long-term care patient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28 main guardians by dividing the burden of care into five type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the LDA-based topic modeling analysis method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hysical burden was the limitation of physical strength due to the difficulty of supporting daily life such as bathing, urine, transportation, and assistance, and the economic burden was the burden of nursing expenses and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and snacks. The emotional burden is helplessness felt in a state where the patient's condition was not maintained or improved, The dependent burden is the burden due to the need for continuous visits, and the need for going out. Social burden is the unwanted breakdown of relationships due to restrictions on social life and gatherings,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work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a practical system that can help patients bathe and move is needed to reduce the physical burden on primary caregivers, and that nursing care costs for elderly long-term care patient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Keywords: Topic modeling, LDA methods, Elderly long-term care, Primary guardian, Burden of care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Dr. Kim's dissertation.

** First Author: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Hansung University, South Korea

I.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22년 현재 전체 인구 5,162만 8천 명 중 17.5%인 901만 명이며, 2025년 20.6%로 도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돌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서비스를 통해 주 보호자의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수진, 2018; 이석민, 2012; 이진숙, 2011; 함희정, 2021). 여기서,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가진 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에 대한 주 보호자는 환자에 대한 돌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상당한 돌봄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박주희, 2017; 조규학, 2018).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에 대한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란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한다(George & Gwyther, 1986). 돌봄 부담은 돌봄 과정의 결과로 주 보호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돌봄 부담(과로, 수면 부족), 정서적 돌봄 부담(우울, 분노, 불안, 죄책감), 사회 활동적 돌봄 부담(고립, 여가 활동 제한), 경제적 돌봄 부담, 의존적 돌봄 부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주 보호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다(윤지영, 2013; 한숙정 외, 2014; 한은정 외, 2015; Papastavrou et al., 2011; Pinguart & Sorensen, 200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돌봄 부담을 사적, 공적 부담으로 구분한 연구(이난희, 2022), 여성을 돌봄의 주 보호자로 구분하여 연구한 현상학적 연구(이영하, 2021), 부담을 구체적인 4가지 부담의 용어로 구분한 연구(George & Gwyther, 1986) 등이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에 대한 돌봄의 주체는 남성보다 여성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이윤경, 2009). 이것들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문제점을 다루었던 연구도 있지만(권중돈, 2018; 김민경·서경화, 2017; 이현주, 2017),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인터뷰 통해

심층적,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 보호자 부담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으로 수행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의 주 보호자가 돌봄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주 보호자들의 돌봄의 형태를 세 가지 보호 방법(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적시된 급여의 형태인 시설급여 이용 주 보호자이다. 둘째, 주간보호는 재가급여의 주·야간보호 이용 주 보호자를 말한다. 셋째, 가족요양은 재가급여의 방문요양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족요양을 하는 주 보호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돌보고 있는 주 보호자를 포함한다. 또한, 주 보호자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부담, 의존적 부담, 사회적 부담으로 구분하고, 주 보호자의 부담에 관한 인터뷰를 보호 방법에 따라 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으로 구분하여 어떤 부담감이 있고 부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돌봄 부담의 가장 원인과 주 보호자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 원인의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및 보호방법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장기요양제도의 대상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및 IADL(Institution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지표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일상적인 생활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이다. 더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호는 허약한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OECD, 2005). WHO에서는 자기 자신 신체를 스스로 안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자가 자립, 자율, 참여,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가능한 한 최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비공식 수발자, 즉 가족, 친지, 이웃 또는 전문적 종사자에 의해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노인의 질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건강보험이라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중풍 등이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요양, 돌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신청자 수는 2023년 8월 31일 현재 1,411,569명이다. 이 중에서 등급 인정을 받은 등급자 수는 1,075,610명으로 74.45%이다. 운영센터별 등급판정 전국 장기요양 신청자는 1,411,567명으로 남자 416,770명, 여자 994,799명으로 여자가 2배 이상 높다. 특히 85세 이상 여자가 331,598명으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시설급여 4조 3,465억, 재가급여 7조 997억으로 합계 12조 5,742억 원으로 작년 11조 1,146억 원 대비 13.1% 증가하였다. 재가급여는 작년 대비 14.6%, 시설급여는 11.3%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가 보호받는 방법은 크게 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설보호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기관으로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완전히 입소하여 보호받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시설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 한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노인시설보호가 4,372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778개소가 있으며 각각 정원은 218,737명과 15,707명

이다(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3). 차이점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내용으로 시설 규모와 정원의 차이를 정의하고 있다.

둘째, 주간보호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인 주·야간보호를 지칭하며 낮 시간 동안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보통 3~5등급의 재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통 65세 이상이지만 초록이 치매라 하여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주간보호는 어린이 유치원의 시스템과 비슷해서 이동 서비스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교통비 지원도 받고 있다. 비급여 간식과 급식 제공을 하고 있다. 주간보호의 운영 일수는 주 6일 운영이 78.9%로 가장 많고, 주 7일 11.6%, 주 5일 이하 9.5%이다. 평균 운영시간은 1일 10.4시간이며,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 34.9%,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7.2%, 11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7.0%, 12시간 이상 16.0%, 9시간 미만 4.9%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99.7%, 간식비 86.8%, 기저귀 7.1%, 기타 0.3%이며, 비급여 항목별 평균 금액은 식 재료비가 2,736원(1식), 기저귀 1,783원(1일), 간식비 798원(1식)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실태조사, 2022).

셋째, 가족요양은 재가급여의 방문요양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족요양을 하는 주 보호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돌보고 있는 주 보호자를 포함한다. 공적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된 선진국의 전체 돌봄의 70~90%가 가족 돌봄 제공이라는 보고가 있다(Colombo et al., 2011).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등급 인정탈락자는 전체 14.8%에 이르는 176,011명으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주 보호자란 가족구성원 중에서 노인의 부양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하고 이를 조작적 정의로 설명한다면 환자의 치료 및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하는 주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윤정원, 2015). 주 보호자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중에 여러 가지 측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정신적 부문에서 유발되는 부담으로 부양자들의 부정적인 경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라고 한다

(Poulshock & Deimling, 1984). 결국, 돌봄 부담은 돌봄자 스스로 인지하는 부담으로 가족구성원의 누군가가 질병을 앓게 되면 가족원이 환자의 돌봄에 따른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Zarit et al., 1986) 노인을 부양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 가족관계에 대한 부정적 변화이다(이성자,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주 보호자의 정신적,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정서적, 경제적 상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Brodman et al., 1951), 또한,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몇이 이루어지고 있으나(Zarit et al., 1986; Poulshock & Deimling, 1984: 황진화·박영숙, 1997; 신경림, 1994, 윤정원, 2015, 김요은,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자의 신체적 단위로서 주 보호자의 정신적 안녕과 부담감을 완화 시키고 부담감의 정도를 평가하여 이에 관한 대응책을 연구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주 보호자가 겪게 되는 건강과 부담감에 관한 실증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의 주 보호자 보호자 돌봄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주보호자의 부담을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부담, 의존적 부담, 사회적 부담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신체적 부담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건강상의 부담은 휴식 시간 부족, 피로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치매 노인 주 보호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도구적·서비스 돌봄과 같은 의미로 신체적 돌봄은 일상생활 중 가사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축, 간병, 식사, 심부름, 청소, 목욕 등의 시중을 신체적인 독립과 거동 및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박근수·김태일, 2016).

둘째, 경제적 부담은 환자를 돌보는 동안 드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 보호자들은 돌봄에 따르는 행위로 인해 역할긴장을 경험하며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축, 재교육 및 훈련 기회의 상실, 원하지 않는 결근과 외출, 돌봄에 대한 염려로 인한 업무 방해, 경제활동의 중단, 승진 및 영전 기회의

상실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전체 가족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백용운·최수일, 2010).

셋째, 정서적 부담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태도나 반응을 말한다(Montgomery et al., 1985). 주 보호자가 느끼는 정서적 부담은 죄책감과 무력감이다. 말하자면 환자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 환자를 집에 서 모실 수 없는 경우의 죄책감, 미안감 등이다.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환자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허무감,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의존적 부담은 환자의 지나친 요구와 집착, 의존성으로 부정적 변화를 겪는 주 보호자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긴장과 분노의 감정 조작당하는 느낌을 말한다(Poulshock & Deimling, 1984). 마비 환자 가족원의 부담 연구에서 부담감은 환자의 기능적 상태 즉 의존 정도와 환자의 건강 상태의 불편감, 심각함이 사회적지지와 가족수에 부정적 상관관계 연구가 있고(박명희, 1991) 돌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의존도가 높은 만성질환자를 오랫동안 돌봄으로 돌봄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은 가족 간에 임무를 교대하는 경우는 덜 할 수 있으나 임무 교대가 불규칙하거나 잘 안되는 경우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부담은 주 돌봄의 여성이 돌봄 중 자아 상실을 경험하고 사회와 접촉이 단절되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오는 현상을 말한다(이성자, 2019). 돌봄으로 인해 휴가나 모임을 못 하고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등으로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이성자, 2019). 또한, 보호자는 친구나 친지들의 모임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치매 노인의 의심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도 어렵게 되기에 친구 관계가 축소되고 소외된다(김스미, 2003).

III. 연구설계

1.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장 다루기 힘든 치매 노인을 돌봄 하는 가족 중 주 보호자가 갖고 있는 부담감과 관련된 치매 노인 가족의 체험 세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주 보호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주 보호자의 부담을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적, 사회적 부담 5가지로 구성하고, 주 보호자의 부담이 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이라는 세 가지 보호 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분석을 가지고 토픽 단어분석을 통해 주 보호자의 부담이 무엇인지 상위연관어를 산출하여 어떤 부담의 단어들인지를 산출되는지 이 단어들의 부담 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조사대상자는 총 28명으로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심층 면담 및 참여 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 모집 과정에는 전남 순천시 순천주간보호협회와 순천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원 시설장들의 도움을 받아 각각 시설 이용 보호자의 참여 의사를 묻고 인터뷰 진행을 했으며 가족요양 보호자들의 발굴 또한 도움을 받았다.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과 친근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자는 조사대상자의 집, 연구자의 사무실 또는 조사대상자가 편안해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대화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최근 근황, 자신의 부담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자료수집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인터뷰 시에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이후 반 구조화된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부담, 의존적 부담, 사회적 부담을 차례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하여 보관한 다음 이를 문자화하여 부담별로 정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의 내용이 회의 주제로 발표되고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혹시 의도한 내용과 상반된 기록 부분은 없는지 녹취된 인터뷰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뷰 소요 되는 시간은 평균 120분이었으며 1인당 인터뷰 횟수는 평균 1.5회였다.

2.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주 보호자를 중심으로 시설급여인 노인시설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인 시설보호 환자의 주 보호자 8명, 재가급여의 주간보호 이용 환자의 주 보호자 10명, 재가급여의 방문요양 중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는 주 보호자 5명과 가정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주 보호자 5명을 가족요양으로 통합하여 10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고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고 본 연구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사람으로 28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 후반에서 70세 중반대 등으로 다양하고 돌보는 요양보호 환자의 평균연령은 84.7세였다. 시설 입소 요양보호 환자의 조사대상자는 순천 노인복지연합회 회원 시설장들의 각 기관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입소 환자의 주 보호자 중 면담을 수락한 주 보호자를 중심으로 8명을 선정하였고 주간보호 이용 조사대상자는 순천 주간보호협회 회원 시설장들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주간보호를 이용 중인 환자의 주 보호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초기 순수 가정 내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를 찾기 힘들어 방문요양을 함께 운영하는 협회 시설장과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도움으로 재가급여의 방문요양 중 가족 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을 하는 주 보호자 5명과 장기요양급여를 미 이용하는 주 보호자 5명을 가족요양으로 통합하여 10명을 선정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in caregivers interviewed (N: 28)

No.	Type	Sex	Age	Spouse	Period (yr)	patient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sex	age	spouse	education	Disease
1	Facility	F	56	Yes	10	MiL	F	78	Yes	E	dementia
2	Facility	F	48	Yes	11	MiL	F	79	No	E	dementia
3	Facility	F	48	Yes	10	Mother	F	72	No	E	dementia
4	Facility	F	49	Yes	5	Mother	F	72	No	E	dementia
5	Facility	F	53	Yes	3	Mother	F	76	No	E	dementia
6	Facility	F	51	Yes	5	MiL	F	84	No	E	hemiplegia
7	Facility	F	53	Yes	5	MiL	F	90	No	No	dementia
8	Facility	F	45	Yes	2	Father	M	86	Yes	Middle	dementia
9	Facility	F	54	Yes	5	MiL	F	78	Yes	Middle	dementia
10	Facility	F	52	Yes	3	Father	M	90	No	E	hemiplegia
11	Day care	F	49	Yes	3	Father	M	92	No	No	dementia
12	Day care	F	47	Yes	4	GiL	F	94	No	No	dementia
13	Day care	F	48	Yes	3	FiL	M	89	No	No	dementia
14	Day care	F	69	No	1	Mother	F	93	No	High	dementia
15	Day care	F	54	Yes	4	Father	M	89	No	E	dementia
16	Day care	F	54	No	3	Father	M	83	Yes	Uni.	dementia
17	Day care	F	54	Yes	3	Mother	F	82	No	E	hemiplegia
18	Day care	F	69	Yes	4	Mother	F	90	No	No	dementia
19	Family	F	46	Yes	6	FiL	M	87	Yes	No	cancer
20	Family	F	70	Yes	5	Spouse	M	75	Yes	No	dementia
21	Family	F	52	Yes	7	Mother	F	77	No	Uni.	dementia
22	Family	F	48	Yes	7	MiL	F	95	No	No	dementia
23	Family	F	54	Yes	10	Mother	F	85	No	No	physical disability
24	Family	F	69	Yes	2	Mother	F	92	No	No	dementia
25	Family	F	66	No	5	Sister	F	68	Yes	E	dementia
26	Family	F	70	Yes	3	Mother	F	94	No	No	chronic cough
27	Family	F	65	Yes	5	Mother	F	92	No	No	Difficulty moving
28	Family	F	58	Yes	7	Mother	F	90	No	No	dementia

Note: F=Female, M=Male, MiL=Mother-in-Law, FiL=Father-in-Law, GiL = Grandmother-in-law, E=elementary school,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주 보호자들의 평균나이는 55.3세로 가족요양, 주간보호, 시설보호 순으로 가족요양 주 보호자가 59.6세로 가장 높고 시설보호 주 보호자 평균이 50.3세로 가장 낮았다. 요양보호 환자와 주 보호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28명 모두 여성으로 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며느리 8명 외 아내와 손자며느리, 친정 여동생이 각각 1명이다. 딸 주 보호자가 가장 많은 보호 방법은 주간보호 방법으로 10명 중 7명의 관계가 친정 쪽 딸 주 보호자이다. 또한, 보호를 받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8명, 여성이 20명으로 성 비율은 1:3이다. 성별 평균 나이는 남성이 85.1세, 여성이 84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평균나이는 84.7세이다. 남성 시설보호 환자 8명은 배우자 유무 비율이 50%이지만 반면 여성 시설보호 환자 중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3명으로 10.7%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각각 부담별로 정리된 내용의 주요 단어를 도출하고, 주제어 도출을 위해 토픽 모델링 주제 모형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부담별로 텍스트처리를 하여 데이터를 변환하여 명사를 추출하였고, 주제어 도출을 위해 데이터 변환은 문서 내 단어의 확률분포를 계산하여 찾아낸 단어의 군집을 통해 문서의 주제를 추론하는 방법(LDA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추출된 명사를 단어빈도 분석하여 각각의 부담별로 나온 상위연관어를 산출해 내었다. TF-IDF는 단어빈도와 역문서 빈도의 곱이다. TF(단어빈도, term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TF-IDF가 높으면 문서의 핵심어가 될 수 있다. TF-IDF 값이 거의 비슷하게 분석값으로 도출된 단어들은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주 보호자의 부담과 관련된 주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LDA기법은 문헌 내의 잠재된 토픽을 추정하는 것으로 어떤 단어들을 어떠한 토픽에서 선택하여 배치할 것인지 각각의 파라미터(parameter; α , β)로 모델링하는 기법으로 문헌, 단어 등 관찰된 변수(w)를 통해 문헌의 구조 같은 잠재 변수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전체 문서 집합의 주제들과 문서별 주제 비율 및 각 주제에

포함될 단어들의 분포를 산출할 수 있다(박종도, 2019). 이 연구에서는 각각 부담별 조사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에 잠재적인 확률을 정한 후 디리클레 확률분포(Dirichlet probability distribution)로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서의 토픽과 단어에 대한 확률값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LDA의 장점은 어떤 토픽과 단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비지도 생성 모델(unsupervised generative model)이기 때문에 각 토픽과 관련한 모든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Blei et al., 2003). 그러나, 정규분포의 환경에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 부적합하고(Liu et al., 2011). 주어진 문서 집합에 대해 토픽의 수나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픽 내 단어 간의 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안성주양 정진, 2018).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별로 약 120분 분량의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 작업하여 반복해서 읽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단어와 주제를 찾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인터뷰 요청을 하여 질문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을 5가지 부담별로 다시 정리하고 불용어를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부담별 주요 단어를 탐색하였다. 이후 LDA기법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부담별로 3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IV. 분석결과

주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부담에 대한 인터뷰 내용분석을 통해 토픽 단어분석을 통해 주 보호자의 부담이 무엇인지 상위연관어를 산출하여 어떤 부담의 단어들이 도출되는지 이 단어들의 부담 주제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TF-IDF 값이 비슷하게 산출된 단어들의 분석값은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주 보호자의 부담과 연관된 주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5가지 부담별로 전체 내용분석에서 산출된 단어를 알아보고 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으로 나타나는 부담 원인의 단어를 산출하여 보호 방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2> 참조).

1. 신체적 부담

신체적 부담의 전체 토픽의 1순위 단어는 목욕이다. 빈도는 총 431번을 언급하였고 그다음은 옷이며 총 210번 힘이란 단어가 170번 나타났다. 목욕은 가정 내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요양 주 보호자의 토픽 1위로 가장 힘든 영역으로 특히 성별이 바뀌어 돌봄을 하는 경우 돌봄 초기에 목욕이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으며 대소변 실수로 인해 자주 씻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설득하여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과 제한된 시간 안에 옷을 입혀 주간보호에 보내는 것을 힘들어했다.

<Table 2> Key words for all topics by burden

Burden type	ranking	nouns	count	total	freq
physical burden	1	bath	431	6409	0.067249
	2	clothes	210	6409	0.032766
	3	strength	170	6409	0.026525
	4	restroom	124	6409	0.019348
	5	house	120	6409	0.018724
financial burden	1	expense	145	5291	0.027405
	2	children	127	5291	0.024003
	3	education	116	5291	0.021924
	4	stress	92	5291	0.017388
	5	expenditure	76	5291	0.014364
emotional burden	1	work	380	7550	0.050331
	2	hour	259	7550	0.034305
	3	meal	208	7550	0.02755
	4	hospital	177	7550	0.023444
	5	situation	153	7550	0.020265
dependent burden	1	morning	106	2953	0.035896
	2	phone call	106	2953	0.035896
	3	hospital	95	2953	0.032171
	4	stairs	84	2953	0.028446
	5	alone	84	2953	0.028446
social burden	1	hour	133	3592	0.037027
	2	leave of absence	128	3592	0.035635
	3	life	108	3592	0.030067
	4	rehabilitation	96	3592	0.026726
	5	Restrictions	87	3592	0.02422

신체적 부담에 대한 보호방법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의 경우 휠체어, 키, 이동, 노동, 배변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시설에 입소한 환자를 둔 주 보호자의 경우 24시간 시설에 환자의 돌봄을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신체적으로 오는 부담이 다른 보호 방법보다는 적었으나 외출이나 외박 등으로 이동 시 시설 입소 환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다 보니 휠체어 사용에 대한 부담이 높다.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일반 차량에 환자를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휠체어의 무게로 인해 차량에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간다.

둘째,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목욕, 옷, 힘, 화장실, 시간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퇴소 후 집으로 돌아온 환자를 돌보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배회나 이상행동으로 인해 환자를 돌보느라 수면이 부족하고, 낙상 위험 때문에 화장실 동행하여 용변 처리를 돕는 과정도 신체적 부담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목욕, 음식, 허리, 거동, 병원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족요양은 24시간 가정에서 주 보호자가 돌보는 환경이다 보니 다른 보호 방법보다 신체적 부담의 노출시간이 길고, 허리나 체력 등의 단어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2.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의 경우, 경제적인 단어인 비용 혹은 지출, 경비 같은 단어와 자산과 관련된 현금, 부동산, 주식, 상속과 같은 단어가 주로 등장하였다. 주로 가족들이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요양보호 환자의 자산으로 우선 쓰고 부족하면 가족들이 나누어 비용 부담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주 보호자는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자녀의 교육으로 인한 지출 또한 만만치 않아 걱정했고 언제까지 비용지출이 나갈지 몰라 막막하지만, 끝까지 돌봄을 이어 나가겠다는 주 보호자가 많았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보호방법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의 경우 병원비, 경비, 돌발, 입원, 낙상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시설보호 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이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한다 해도 24시간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비용, 교육, 자녀, 간식, 스트레스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주간보호의 경우 환자가 센터에 직접 입소 퇴소를 반복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 옷과 같은 외출에 필요한 물품 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소후 간식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경비, 식사, 지출, 과일, 약값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가족요양의 경우 식사라는 단어가 다른 보호 방법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는 집에서 환자를 24시간 돌보기 때문에 식사와 과일 등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정서적 부담

정서적 부담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모임과 저녁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주 보호자가 환자를 돌봄으로 저녁에 모임이나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 돌봄을 하면서 일부 주 보호자는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게 되고,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 등 사교모임을 가질 수 없어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주 보호자에 대한 타인의 시선은 따뜻해서 주변으로부터 소외감을 받는 느낌은 없으나 주 보호자 스스로가 소외되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부담에 대한 보호방법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의 경우 직장, 상황, 병원, 심리, 업무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시설보호의 주 보호자들은 다른 보호 방법으로 환자를 돌보는 주 보호자들보다 정서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였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 보니 언제 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나타났다.

둘째,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일, 시간, 식사, 마음, 외출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환자의 퇴소 시간에 맞추어 집에 돌아와야 하고 식사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현실에서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과의 사교적인 모임에서 스스로 제외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시간, 병원, 직장, 저녁, 식사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족요양의 주 보호자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거나 정서적 휴식을 갖지 못해 만성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존적 부담

의존적 부담의 아침과 전화라는 단어가 106번으로 총 2,953번 중 0.036% 비율로 도출되었다. 아침 시간이 환자의 의존 정도가 가장 많은 시점이고 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아침 시간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는 주간보호 방법에서 특히 많이 언급되었다. 전화는 가족요양 방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주 보호자와 단둘이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주 보호자의 부재 시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 소통의 수단과 집착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의존적 부담에 대한 보호방법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의 경우 시간, 제약, 병원, 자녀, 성격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시설의 특성상 환자와 주 보호자가 분리되어 생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가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내재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 보호자는 환자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일부러 내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느끼게 된다.

둘째,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아침, 계단, 혼자, 외출, 의자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주간보호 이용 환자는 센터 입소 준비 과정에 주 보호자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식사에서 몸단장, 집에서 차량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주 보호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환자가 주 보호자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는 순간이 외출을 준비할 때이고, 계단을 이용할 때 특히 손을 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전화, 일상, 요구, 생활, 시간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주 보호자가 환자의 손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 환경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전화 통화 집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의 의존적이고 집착적 요구로 인해 주 보호자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5. 사회적 부담

사회적 부담의 전체 토픽 주요 단어는 시간이 133번, 휴식이 128번, 생활이 108번 나타났다. 돌봄의 사회적 부담은 곧 돌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에서의 불이익들이 주요한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은 모든 부담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사회적 부담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나왔다. 이는 가족요양에서 언급된 개인적인 시간의 의미보다는 돌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부담에 대한 보호방법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의 경우 휴가, 스케줄, 멀리, 부담담, 불편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시설보호 환자의 특성상 응급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갑작스러운 시설의 호출이나 응급입원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이나 스케줄 변경 등의 사회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자의 면회를 위해 휴무나 연차 등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고 원거리에 있는 시설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휴식, 복직, 모니터링, 경제, 급여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주간보호 이용 환자 중 가장 보호가 어려운 환자는 배회가 있어 새벽에 집을 나가거나 사고 경험이 잦은 경우인데, 이 때문에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하게도, 주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살고 싶은 욕구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휴직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생활, 제약, 단절, 활동, 모임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주보호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고 사회생활이 단절된다. 특히 퇴근 후 저녁 모임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 보호자의 부담별 주제어 도출

토픽 모델링 기법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통계 추론 모델로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연구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구 주제를 문헌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연구 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박종도, 2019). <표 3>는 주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부담에 대한 인터뷰 내용분석을 LDA기법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각각 부담별 주 보호자의 부담이 무엇인지에 관한 주제어를 도출한 것이다.

첫째, 신체적 부담의 경우 제1의 주제어는 돌봄(care)으로 나타나는 체력의 한계이다. 공통적인 주제는 돌봄의 종류의 우선순위는 보호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목욕과 식사 보조, 배변 보조와 이동 부족 시 오는 신체적 한계를 힘든 점으로 나타났다. 제2의 주제어는 이동 시 오는 돌봄 부담이다. 요양원에 전적으로 맡기지만 병원 이동 시 보호자의 몫이고, 평상시 병원 이동 시 또는 후에 오는 신체적 부담으로 인한 주 보호자의 고통을 말한다. 제3의 주제어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생활 지원이다. 식사와 목욕, 화장실 이용 등의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워져 오는 돌봄이다. 실제 화장실 돌봄이 안 되는 경우가 시설 입소의 한 원인이 된다.

둘째, 경제적 부담의 제1주제어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병원비는 그나마 건강보험이 있어 부담이 덜 하지만 주 보호자들은 특히 병원비보다도 간병비 부담이 힘들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을 요하고 간병 또한 노인의 특성상 24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환자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인한 사고다 보니 직장을 다니는 주 보호자는 예정되지 않는 휴가나 연차를 신청하는 스트레스가 크다. 제2의 주제어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부담이다. 제3의 주제어는 돌봄 중 음식 간식 등에 대한 경비 부담이다.

셋째, 정서적 부담의 제1주제어는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이다. 돌봄으로 인해 저녁 모임을 전혀 가질 수 없고, 모임이 있더라도 빨리 돌아와 돌봄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이로 인한 대인관계를 이어갈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에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환자에 대해선 죄책감이 앞선다. 직장에서도 돌봄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는 현실이다. 제2주제어는 돌봄으로 인해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모임 참석 못 하니, 관계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회복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재충전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다. 제3주제어는 저녁 시간에 치매 환자를 의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무기력이다. 저녁 식사와 저녁 돌봄을 맡길 곳이 없어서 저녁에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들이 단절된다.

넷째, 의존적 부담의 제1주제어는 매일 하는 문안 인사이다. 장기요양보호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제2주제어는 방문으로 인한 시간 제약이다. 보호자들은 환자로 인해 많은 외출과 모임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도 지장이 생기는 등 의존으로 인해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제3주제어는 외출 동행에 대한 부담이다.

다섯째, 사회적 부담의 제1주제어는 주 보호자이기에 오는 사회생활의 모임 제약으로 인한 영향이다. 주 보호자들은 직장 생활도 개인적인 모임도 환자의 돌봄 중에 오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단절이 생긴다. 이로 오는 소외감은 정서적 후유증을 남긴다. 제2주제어는 돌봄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관계 단절로 인한 후유증이다. 직장, 친구, 가족들로부터 단절되면서 따돌림을 경험하고, 또한 관계가 영영 멀어질까 혹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제3주제어는 휴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다.

<Table 3> Summary of main topic results by burden type

Type	Derivation of keywords	key words
physical burde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thing, toileting, etc. 2. Care burden that comes with moving 3. Difficulties in daily life support 	Bath, clothes, power, toilet, home, body, time, hospital, diaper, waist
financial burde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tress caused by the burden of care costs 2. Double burden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3. Snack cost burden 	Costs, children, education, stress, expenses, expenses, hospital bills, snacks, family, gratitude
emotional burde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helplessness of dementia care 2. Feeling guilty about not being able to attend in person 3. Lack of recharge time 	work, time, meal, hospital, situation, meeting, mind, workplace, going out, evening
dependent burde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reetings (morning care) 2. Time constraints due to visit requirements 3. Burden due to going out with someone 	Morning, phone, hospital, stairs, alone, going out, request, chair, daily life, time
social burde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strictions on gatherings in social life 2. Unwanted relationship breakup 3. Difficulties in work life 	time, leave, life, reinstatement, restrictions, meeting, workplace, monitoring, work, appointment

IV. 결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돌봄 부담에 관하여 본 논문은 주 보호자가 생각하는 부담이 무엇인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5가지 부담 별로 각각 상위빈도의 단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분석을 통해 주제어를 각각 3개씩 도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부담은 돌봄으로 인해 오는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환자의 이동을 많이 힘들어했다. 집에서 돌봄으로 나타나는 돌봄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 이는 단어빈도 산출된 명사와 주제어가 혼합되어 나오는데 주로 목욕, 화장실 돌봄, 식사, 이동 도움 등이었다.

경제적 부담은 간병비로 인한 스트레스였으며 이 간병비가 경제적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간식비와 자녀의 교육비 또한 그러했다. 경제적 부담의 해결 방법으로 거의 모든 보호자가 형제, 자매들의 공동 부담 방법을 선택해 부담을 줄이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노령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경제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고 돌봄비용 부담의 보편화를 시킨 요인이다.

정서적 부담은 첫째, 사회적 관계 때문에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 둘째, 환자를 두고 외출 할 방법이 없어 외출을 포기함으로 오는 고립감과 소외감이다. 셋째, 이 역시 돌봄의 대역이 없어 개인 시간을 가지 못해 오는 상실에서 오는 재충전의 시간 부족이다.

의존적 부담은 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의존의 강도가 크고 이로 인한 매일 환자를 살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 또한 돌봄을 이어가면서 특히 치매로 인한 돌봄의 경우 비상식과 마주해 있는 환자를 대하는 데서 오는 불가항력 의존은 보호자로 무기력감을 마주하게 하고 항상 동행을 요구하는 외출. 의존적 부담에서는 방문의 요구 경우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일상생활에 대한 전적인 의존도, 그리고 터무니없는 생활상의 요구, 시간에 대한 제약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부담의 결과는 돌봄 때문에 사회생활 모임 제약을 받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을 받아 원하지 않는 관계 단절이다. 사회적 부담에서는 직장 생활에서의 시간 조절 문제와 주 보호자 역할 충실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 생활상의 불규칙, 그리고 제약, 모임에서의 소외현상과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주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녁 시간 돌봄 제도 신설이다. 보호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저녁 시간을 포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은

상당하다. 하지만 시설보호 외에는 저녁에 돌봄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재 24시간 방문 요양제도와 단기 보호제도 그리고 주간보호 제도를 저녁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모 돌봄 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처럼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일정 기간 돌볼 수 있도록 직장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매 초기와 말기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중기치매는 시설보호를 하자니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주 보호자가 가족 요양을 하기에는 주 보호자의 정서적, 의존적, 사회적 소진이 크다.

셋째, 주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상태가 유지나 향상이 되지 않고 계속 저하 되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신체, 정신은 계속해서 소진될 수밖에 없다. 긴 돌봄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보호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이 쉽도록 운영기관을 신설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요양 수가의 현실화이다. 24시간 환자의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 가족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보호를 맡기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는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시설보호의 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많은 노인 환자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환자를 모시고자 하는 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실질적 정책을 기대해본다.

References

- Ahn, S.J., and Yang, J.J. (2018). "Study on a biological information topic model combining LDA and Word2Vec". 『Korea Computer Science Conference』, Proceedings: 2065–2067.
- Baek, Y.U., and Choi, S.I. (2010). "Study on the stress of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Korea Contents Association』. 49(4): 215–239.
- Blei, D.M., Ng, A.Y., and Jordan, M.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 3 No. Jan, pp. 993–1022.
- Colombo, F., Llena-Nozal, A., Mercier, J., and Tjadens, F. (2011). "Help wanted". *Ageing and long-term care*, Vol. 17 No. 2–3, pp. 3.
- George, L.K., and Gwyther, L.P.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Vol. 26 No. 3, pp. 253–259.
- Ham, H.J. (2021). 『Reviews on the care experience of families of long-term care patients』. Doctoral thesis, Hansa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an, E.J., Na, Y.K., Lee, J.S., and Kwon, J.H.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burden of care of elderly family caregivers receiving long-term care at home: Comparison of subdimensions". 『Korean Social Policy』, 22(2): 61–96.
- Han, S.J., Lee, S.Y., Kim, J.Y., and Kim, H.S. (2014).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on factors related to the burden of care for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Geriatric Nursing*, 16(3): 242–254.
- Hwang, J.H., and Park, Y.S. (1997). 『Analysis of the concept of burden』. 『Geochang Junior College Journal』, 2, 271–282.
- Jo, G.H. (2018). "The impact of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on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Doctoral thesis, Hanyo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M.K., and Seo, K.H. (2017).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National Policy Research*, 31(1): 233–260.
- Kim, S.M. (2003).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resources on the stress of dependent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Doctoral thesi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Y.E. (2015). 「Impacts and policy challenges of the reform of the elective treatment system」. 『Korea Hospital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
- Kwon, J.D. (2019). 「Elderly welfare theory」. Paju: Hakjisa.
- Lee, J.S. (2011). “Doe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lleviate the burden of care on families?: Focusing on cash benefits and family caregiver issues”. 『Family and Culture』 , 26(2): 126–150.
- Lee, H.J. (2017). “Talk about the pain of dementia and responsible care”. 『Korean Senior Welfare Society Conference』 , 7(2): 172–197.
- Lee, N.H. (2022).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caring for a mother with dementia: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sing family care and public care」.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Seoul Christian University.
- Lee, S.M. (2012).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on family caregivers”.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14(1): 167–194.
- Lee, S.J. (2019). 「The impact of the burden of care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family members of elderly care resi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facility satisfaction」. Doctoral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 Lee, Y.H.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amilies’ experiences of caring for the elderly: Focusing on the care experiences of wives, daughters-in-law, and daughters.” Doctoral thesis,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Y.K. (2009). “Analysis of factors determining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29(1).

- Liu, Z., Zhang, Y., Chang, E.Y., and Sun, M. (2011). "Plda+ parallel latent dirichlet allocation with data placement and pipeline processing". *ACM Transactions on Intelligent Systems and Technology (TIST)*, Vol. 2 No. 3, pp. 1–1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2022 Long-Term Care Survey.
- Montgomery, R.J., Gonyea, J.G., and Hooyman, N.R. (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pp. 19–26.
- OECD. (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OECD.
- Papastavrou, E., Tsangari, H., Karayiannis, G., Papacostas, S., Efstathiou, G., and Sourtzi, P. (2011). "Caring and coping: The dementia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Vol. 15 No. 6, pp. 702–711.
- Park, G.S., & Kim, T.I. (2016). "The impact of baby boomers' retirement preparation on their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467–479.
- Park, J.D. (2019). "Research on tracking issues in multicultural research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53(3): 274.
- Park, M.H. (1991). "Study on family relationships and eating habits of elderly people with mobility iss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ome Economics*, 29(3): 85–98.
- Park, S.J. (2018). "Study on adult children's awareness of parental support: Focusing on those in their 20s and 30s". Doctoral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Pinquart, M., and Sorensen, S. (2003). "Associations of stressors and uplifts of caregiving with caregiver burden and depressive mood: a meta-analysi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 58 No. 2, pp. 112–128.
- Poulshock, S.W., and Deimling, G.T. (1984). "Families caring for elders in residence: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Vol. 39 No. 2, pp. 230–239.

- Shin, G.R. (1994). "Family Burden of Chronic Patients". 『Korean Nursing』, 33(5), 6-18.
- Yoon, J.W. (2015).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and coping strategies in home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Yoon, J.Y. (2013).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burden of care for elderly families in long-term care: Focusing on families using elderly day care facilities". Hallym Aging Society Research, 1(1): 1-20.
- Zarit, S.H., Todd, P.A., and Zarit, J.M. (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Vol. 26 No. 3, pp. 260-266.*

김은영(Kim, Eunyoung) :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은빛정원 은빛사랑
채노인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장기요양환자의 주 보호자 부담 결정요
인 연구(2024) 가 있다. (e-mail: 1004ziwon@hanmail.net)

최천근(Choi, Cheon Geun)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새조직론(2012), 현대국가의 행정학(202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among
Outpatient Service Users in South Korea(2019), Understand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in South Korea(2018) 등이 있
다. (e-mail: cheongeunchoi@hansung.ac.kr)

<논문접수일: 2024. 03. 01. / 논문수정일: 2024. 05. 15. / 게재확정일: 2024. 05. 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의 주 보호자 돌봄 부담 연구*

김은영**

최친근***

<초록>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의 주 보호자 보호자 돌봄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부담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돌봄의 방법을 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LDA기반의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 부담별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찾고, 상위연관어를 중심으로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부담은 목욕 대소변 수발 이동 부축 등의 일상생활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력의 한계를, 경제적 부담은 간병비와 자녀 교육비 간식비 등의 부담이 나타났다. 정서적 부담의 경우 주 보호자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치매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유지·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무기력과 환자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 등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부담의 경우 매일 아침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안 인사와 지속적인 방문의 요구 등으로 인한 부담이 분석되었으며, 사회적 부담은 사회생활과 모임 제약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관계 단절이 있고 이로 인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주보호자의 신체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의 목욕과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환자의 간병비 제도화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토픽모델링, LDA 기법, 노인장기요양보호, 주 보호자, 돌봄 부담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임.

본 논문은 김은영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한성대학교 행정학 박사

*** 교신저자,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